

“훈훈한 추억의 정경을 섬세한 언어의 직조로 형상화”

미당문학 신인상에 박선희 ‘감자’ · 김태수 ‘독거노인’ 선정

미당문학(발행인 김동수)은 제1회 미당문학 신인작품상에 박선희의 시(감자)와 김태수의 시조(독거노인)를 각각 선정했다.

문호치(한국문인협회 이사장)위원장과 송하선(우석대 명예교수), 이준관(전 한국동시협회 회장)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에서 ‘박선희의 시는 감자에서 연상된 훈훈한 추억의 정경을 섬세한 언어의 직조와 선명한 이미지로 아름답게 형상화하였다’며 ‘서정시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

품이었다’고 평했다.

또 ‘김태수의 시조는 시조의 전통을 격에 현대성과 시성을 조화롭게 가미해서 시조의 함축미와 서정성을 잘 살려낸 작품이었다’며 ‘독거노인의 곡절 많은 신산한 삶을 자전기에 비유하여 함축적이고 참신하게 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박선희 씨는 “세상에 희망을 밝히고, 고단한 이의 힘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편 출신으로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김태수 씨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민



박선희 김태수
 엄했다.
 김태수 씨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민 /정해은 기자

자로 살면서 동포문화와 한국문학의 경계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미당 선생의 서정세계와 연금술사적인 우리말의 시적 세련을 본받아 시조를 미주 지역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다. 이 상은 미당의 문학 업적을 기리고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자에게 각기 100만원의 창작지원금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고창 미당사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문화기획자 이선철 대표의 감자꽃 이야기

국립민속국악원은 강원도 평창의 작은 폐교를 사람·자연·문화가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일구어 산골마을에 유쾌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문화기획자 이선철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는 28일 11시 국악원 예음관에서 열리는 국악콘서트 다담에는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를 초대해 ‘문화를 통한 공동체 만들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이선철 대표는 유능한 문화기획자로 비평가 활동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30대 초반에 평창의 한 폐교로 이사했다. 문화기획자가 강원도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인사들은 그에게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했고, 그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2006년 감자꽃스튜디오를 설립했다.

그는 평창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고교 록·공무원·주부밴드를 결성해 지역민이 문화와 함께 하는 삶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가 기획한 ‘감자꽃스튜디오’는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문화교육공간으로, 방문객에게는 체험공간으로 활용되며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선철 대표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영국 런던 시태대학교 문화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김덕수배 사물놀이 사무국장 공연 음반제작 벤처기업 (슈플라미디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문화예술행정)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국악콘서트 다담에는 그의 이야기와 함께 ‘양상블 소나리’ 무의 음악이 더해진다. ‘행복으로 가는 계단’, ‘마지막 선불’ 등 그들만의 감각적인 음악을 비롯해 전통 풍류음악 천년만세,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OST 중 쇼스타코비치의 ‘Jazz Suites No. 2 - Waltz’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전주시립국악단의 대금·피리·해금 연주자를 중심으로 2008년 결성된 양상블 소나리무는 전통과 창작, 대중이 함께 하는 국악음악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는 그룹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다.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063)820-2824. /정해은 기자

전북도립 미술관 전북청년 2017 참여 미술가 선정

강성은 · 이가립 참여확정



강성은 이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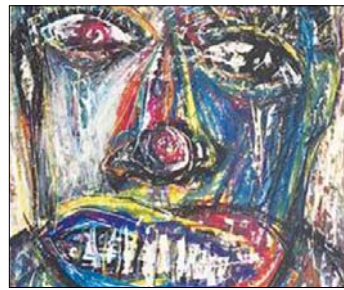
〈전북청년 2017〉전에 참여한 30명의 작가 분께 깊은 감사하다”며, “작가 선정은 여러 차례 고심한 끝에 결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작품을 보면서 전북미술이 한국미술을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성은(1982, 한국화)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회화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평면) 전문사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동양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4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신청, 2006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로 뽑힌 이력이 있다.

이가립(1982, 회화)은 2009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 서양회화과 졸업하고, (사)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2012 FACE (공유갤러리/전주), 2014 FACE (백화갤러리/전주) 개인전 및 다수의 작품 전시를 해왔다.

/정해은기자



이가립 작품(위) 강성은 작품 (아래)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청년 2017〉 전시회에 참여할 미술가로 강성과 이가립 작가를 선정했다.

이들 작가에게는 내년 ‘전북청년 2017’ 전시회 작품 전시할 일정공과 재료비 지원이 이뤄지며 국내외 레지던시 파견 및 작품구입 등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장석원 도립미술관장 및 정복수 미술가는 심사평에서 “이번

정읍시립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 기획전시 마련

2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달아 멀리 비추오리라’ 주제로

정읍시립미술관이 개관 1주년 기념 기획 전시를 마련했다.

시립미술관은 “전라북도 내 최초로 지난해 10월 시립미술관을 개관해 올해 1주년을 맞았다”며 “이들 기념해 ‘달아 멀리 비추오리라 - 현대 미디어 아트의 현장 전(展)’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오는 27일 오후 5시 개막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97일 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현대미술을 이끌어 가는 작가들의 백재가요 정읍사의 달빛’을 주제로 한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만나 볼 수 있는 정읍시립미술관 첫 미디어 아트전이다. 전시 주제인 ‘빛’을 정읍사의

‘달빛’과 연결시켜 현대미술의 미디어 활용과 연계시킨 현대미술전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5명(김남영과 서남희 안종연, 양재문 한승준) 작품을 장르별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빛과 에너지,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미술에 있어 빛의 의미를 미디어아트로 제시해보고, 정읍에서 ‘정읍사’ 속의 달빛과 현대미술의 만남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시립미술관은 기획전시 연계 교육프로



그램인 ‘큐레이터에게 보내는 엽서’를 시범운영한다. 전시기간 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시립미술관은 이번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나가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예총 ‘완주예술제

가을속으로 ‘풍덩’

둔산공원에서 성황리 열려

출범 두돌을 맞이한 완주예술제가 익어가는 가을속으로 ‘풍덩’ 하고 빠져 들었다.

(사)한국예총 완주지회(이하 완주예총)가 주최하고 완주군이 후원하는 제2회 완주예술제가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6개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완주예총은 각 협회마다 특색있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주말을 맞아 예술인들과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나고 흥겨운 행사로 진행됐다.

시진 행사로 연예예술인협회의 빅밴드와 국악협회의 타율립공연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국중하 회장님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완주’를 만들자라는 주제에 맞게 깊어가는 가을의 선율을 지역 주민들에게 맛보여지게 선사했다.

특히 사진협회와 문인협회의 회원들이 준비한 작품전시회는 회원들이 1년간 준비한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중하 예총회장은 “내년에는 금년의 아쉬웠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여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을 많이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지역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안수지 재즈 미니콘서트, 26일 김제문화회관에서

다양한 문화적 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10월 공연이 10월 28일 저녁 7시 30분에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이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문화회관 시설 특성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삶을 제공하고자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공연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깊어가는 가을 한 자락에 사랑노래를 시작으로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곡들이 이어질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0월 24일〉

▷쥐띠
 46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계획적인 자출이 필요하다.
 60년생: 동서남북 분주하나 실속은 적은 운이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다.
 84년생: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운이니 혼자 판단하라.

▷소띠
 49년생: 동기끼리의 불화로 어려움이 따르는 운.
 61년생: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야 문제가 없다.
 73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초기에 대처하라.
 85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진행하라.

▷호랑이띠
 50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선배나 손윗사람을 찾아가라.
 62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긴다. 슬기롭게 대처하라.
 74년생: 겉으로는 화려해보이나 실속이 없을 수 있는 운.
 8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슬땀과 시비가 따르는 운.

▷토끼띠
 5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은 있으나 큰 해는 없다.
 63년생: 일적인 능력이 올라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75년생: 횡재수가 들어오니 금전 거래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겠다.
 87년생: 식욕이 오히려 모임을 갖거나 식사약속을 하는 것도 좋다.

▷용띠
 5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른다.
 64년생: 사람들의 회화에 좋은 운이다.
 76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
 8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6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운이니 적극 진행하라.
 7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귀인이 나타난다.
 89년생: 동기끼리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일을 진행하라.

▷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
 6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라.
 78년생: 허나름 잃으면 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니 긍정적으로 행동.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며 좋은 결실.

▷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
 6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불화가 예상된다.
 91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라.

▷원숭이띠
 55년생: 원행은 심하는 것이 좋다. 뜻하지 않은 횡재로 근심.
 69년생: 평소 애용하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
 81년생: 평소 애용하던 사람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다.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다.

▷닭띠
 57년생: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어려운 운.
 69년생: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의 불화가 예상.
 8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원망 듣는 격이다.
 93년생: 건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운. 화합도 어렵다.

▷개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따르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58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다.
 7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82년생: 크게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욕심을 버려라.

▷돼지띠
 47년생: 가정에 좋은 기운이 들어 왔으니 경사가 있다.
 59년생: 동기끼리 의해 일이 성사되고 재능 발휘가 잘 되
 는 때.
 71년생: 시소한 것에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다.
 83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